

하나님의 불변성

"나는 여호와라 변치 않으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3:6

누군가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신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높은 과학, 가장 고상한 사변,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본성, 인격, 일, 행하심과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데는 정신에 지극히 유익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너무 깊어서 우리의 교만이 그 무한함에 빠져들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고 씨름할 수 있는 다른 주제들에서 우리는 일종의 자기 만족감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과학에 이르러 다림줄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독수리의 눈으로는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헛된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야생 나귀의 망아지와 같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어제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엄숙한 감탄사와 함께 돌아서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묵상의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느낄 의무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 당신은 얼마나 무한하신지요,
우리는 얼마나 쓸모없는 벌레입니까!"

그러나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도 마음을 확장시킵니다. 신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좁은 지구를 돌아다니기만 하는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딱정벌레를 해부하거나 파리를 해부하거나 곤충과 동물을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으로 수업 시간에 배열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자연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질학자로서 메가테리움, 수장룡 및 모든 종류의 멸종 동물에 대해 담론을 펼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과학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넓혀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영혼을 확장시키는 가장 훌륭한 학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한 과학과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신격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이라는 위대한 주제에 대한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탐구만큼 지성을 넓히고 인간의 전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확장하는 동안이 주제는 탁월한 위로를 줍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에는 모든 상처에 대한 향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에 대한 고요함이 있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모든 아픔에 대한 발삼이 있습니다. 슬픔을 잃으시겠습니까?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격의 가장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 그분의 광대함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소파에서 나온 것처럼 상쾌하고 활기차게 나올 것입니다.

나는 신격의 주제에 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위로하고 부풀어 오르는 슬픔과 슬픔의 파도를 진정시키고 시련의 바람에게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와와 불변성이라는 한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제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않으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둘째, 이 영광스러운 속성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들, 즉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셋째, 그렇게 얻은 유익은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교리를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이 교리를 설명하거나 오히려 그 생각을 확대하고, 그 후에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논증을 제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본질에서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함으로써 제 본문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격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실체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존재이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본질이라고 부르며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필멸의 사물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순백의 면류관을 쓴 산은 여름이 되면 낡은 옷을 벗고, 강물은 옆으로 흘러내리고, 폭풍 구름은 또 다른 대관식을 선사합니다. 거대한 홍수로 가득 찬 바다는 햇빛이 파도에 입맞춤하고 안개에 휩싸여 하늘로 날아갈 때 물을 잃습니다. 태양조차도 끊임없이 타오르는 용광로를 보충하기 위해 무한한 전능자의 손에서 새로운 연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변화합니다. 인간, 특히 그의 몸은 항상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 몸에는 몇 년 전의 입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틀은 활동에 의해 닳아 없어졌고, 원자는 마찰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그 동안 새로운 물질 입자가 끊임없이 내 몸에 축적되어 물질이 보충되어 물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물방울이 흘러가고 다른 물방울이 뒤따르면서 강을 가득 채우지만 그 구성 요소는 항상 변하는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분은 어떤 물질이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고 본질적이며 미묘한 영이시므로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이마에는 고랑이 없습니다. 어떤 세월도 그분을 마비시키지 못했으며, 어떤 세월도 그분에게 비행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세월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나, 즉 변하지 않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인성과 하나가 되었을 때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흠으로 몸을 입으셨을 때, 그분의 신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본성의 실제적인 변화로 육신이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위격적 연합으로 연합하셨습니다. 신격은 여전히 동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아기였을 때나 하늘의 휘장을 펼치셨을 때나 십자가에 매달려 보랏빛 강물을 흘리셨던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영원한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신 그분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에 의해서도 그분의 본질에서 결코 변하지 않으셨으며, 변함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빛의 아버지이시며 변화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속성에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태초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도다,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하리라, 아멘이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력하셨나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태에서 세상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강력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분은 산을 찢으시고 깊은 곳을 파내어 구르는 깊은 곳을 만드셨을 때 전능하신 분이셨습니까? 예, 그분은 그때도 강력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팔은 마비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에서 동일한 거인입니다. 그분의 영양의 수액은 여전히 젖어 있고 그분의 영혼의 힘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분은 이 거대한 지구를 구성하실 때, 우주의 기초를 세우실 때 지혜로우셨습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계획하실 때와 영원 전부터 그분의 꿈찍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분은 지혜로우셨습니까? 예, 그분은 지금도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덜 능숙하지도 않으시고 지식이 덜 많지도 않으십니다. 만물을 보는 그분의 눈은 흐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모든 외침, 한숨, 흐느낌,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세월로 인해 무거워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결같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똑같이 능숙한 기술과 무한한 예측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공의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니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분은 과거에도 공의롭고 거룩하셨고 지금도 공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진리 안에서 변함이 없으시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본성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자애로움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때 전능하신 아버지이셨지만 전능한 폭군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강한 사랑은 우리의 최악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화강암 바위처럼 서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시니 그분의 존귀한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처음 성약을 쓰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애정으로 얼마나 충만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계약의 조항을 비준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마음에서 떠나 이 땅에 내려 보내 피 흘리며 죽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강력한 성약에 서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의 성취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해가 빛나지 않고 달이 희미한 빛을 발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를 가져와서 그 위에 항상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취하면 어두운 과거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변치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건축을 시작했지만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하듯이 계획을 변경하여 더 작은 기초 위에 건축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셨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무한한 저장고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오른손이 아침 이슬 방울만큼 많은 세상을 창조 할 수 있는데도 그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머물러야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뒤집거나 변경하거나 어지럽힐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셨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계획 없이 일하려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지성 안에서 모든 것을 오래 전에 정하셨고, 한 번 정하신 계획은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면 운명의 철의 손이 그것을 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 있으며 땅이나 지옥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법령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아, 너희 악마들아, 그것을 천국의 문에서 선포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그 법령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므로 그분의 기쁨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므로 잘못 계획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변해야 합니까? 이 쓸모없는 존재의 원자, 이

시대의 유물들아! 이 존재의 월계수 잎 위에 기어 다니는 벌레들아! 너희는 너희의 계획을 바꿀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결코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분의 손바닥에서 내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네,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네."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달콤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음 주에 영국 은행의 지폐를 현금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폐를 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 중 어떤 단어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안녕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불변하는 것을 원하고 성경을 보면 불변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그분은 그분의 모든 약속에 서명하시고, 확인하시고, 인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며, 오늘은 약속하고 내일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 예"입니다. 신자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기쁜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성경을 펼쳤을 때 그 약속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변한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소돔의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져 단맛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똑같은 꿀이 있었고 그것에 의존하여 똑같은 귀중함이 있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말합니다." "저는 한때는 안정된 약속 위에 집을 굳건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주님, 저는 쫓겨나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초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었던 작은 "나무, 건초, 수염"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밑의 바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한 흑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항상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종종 낙담합니다."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마사입니까?"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약속 위에 제 자신을 얹드리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위에 서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 약속 위에 얹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 나 쓰러졌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 위에 한 번에 평평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항상 "주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약속 위에 평평하게 내려갑니다!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약속 위에 얹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은 반석이며 변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고 거기서 영원히 쉬십시오.

하지만 이제 주제를 망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의 위협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속이 굳건히 서 있고 언약의 모든 맹세가 성취된다면, 죄인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당신의 육체적 희망의 죽음의 종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신뢰의 장례식을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위협과 모든 약속이 성취 될 것입니다. 법령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법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법령이자 법령입니다. 최대한 착하게

행동하고, 최대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최대한 정직하게 행동하고, 최대한 올곧게 행동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변할 수 없는 위협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도덕주의자? 오, 당신은 그 말을 바꾸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싶겠군요.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걸림돌과 범죄의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협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 년 동안의 지옥의 고통이 지나갈 때, 당신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불타는 글자로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만 년이 지나고 고통과 괴로움에 지쳤을 때 눈을 들어도 여전히 "저주를 받으리라"가 변함없이 변함없이 읽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 마지막 실을 뽑아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든 입자가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여전히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끔찍한 생각!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말해야만 해. "당신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거친 것이 아니라면 율법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시내산은 거친 곳입니다. 불경건한 자에게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그분의 위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죄인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넘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만 암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서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져야한다면
그리스도의 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변덕스럽고 연약한 영혼아, 아아,
하루에 천 번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멸망했다면 모든 성도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약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멸망하면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 있으며, 그러면 복음의 약속은 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이며 내가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마침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단번에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사랑하셨다면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나에게 빛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내 것이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분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단순히 확장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으므로 이제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논증적인 설교자는 아니지만, 제가 언급할 한 가지 논증은 바로 신의 존재와 존재 자체가 불변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이 신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 신은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유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변하는 신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생각은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것이어서 한 순간이라도 변화하는 신을 생각하면 단어가 충돌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는 일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몰몬교의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하는 신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둥근 사각형이나 다른 부조리한 것들처럼 변화하는 신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모순된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 가지 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좋은 논거는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분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완벽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변한 후에도 내일은 완벽해야 할까요? 내가 변한다면,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변해야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지금 완벽할 수 없으며, 더 나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변해야 하고, 더 나빠졌다면 그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불완전하지 않고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완벽하다면 내일도 완벽하려면 내일도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그분도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지금의 불완전함이나 그때의 불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변화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한한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무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무한하다면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무한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은 경계가 없고 유한하지 않으며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무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이 오늘도 무한하고 내일도 변해서 무한해야 한다면 두 개의 무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무한하셨다가 변화하신다고 가정하면, 그분은 유한해지셔야 하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 오늘도 유한하시고 내일도 유한하시거나, 오늘도 무한하시고 내일도 유한하시거나, 오늘도 유한하시고 내일도 무한하시거나 - 이 모든 가정은 똑같이 터무니없는 가정입니다. 그분이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은 그분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단번에 잠재웁니다. 무한은 그 이마에 "불변성"이라는 단어를 써 놓았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과거를 살펴보자-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맹세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에 대해 "그분은 그분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스돗과 너희 가자 성문은 울부짖으라, 너희가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돔은 어디 있느냐? 페트라와 그 폐허가 된 성벽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돔은 먹이가 되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반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벨은 어디에 있고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은 어디에 있고 암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나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뿌리 뽑으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한 번이라도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분의 맹세와 언약을 어기셨거나 그분의 계획에서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변하신 경우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변함이 없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변하신 구절이 하나 기억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례는 히스기야의 죽음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병은 불치병이니 집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깥 뜰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서 "너는 십오 년을 더 살리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서 조금도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으셨으니 그걸 아셨다면 어떻게 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사실을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므낫세도, 요시아도, 그리스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혈통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열두 살이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탄생을 선언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병이 불치병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가 고칠 것이니 너는 살리라"고 말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선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확률에 따르면 당신의 병은 불치병이며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 문장 끝에 "그러나"라는 작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사야는 문장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치료법이 없으므로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잠시 기도한 후 다시 들어와서 "그러나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외하고는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요?

II. 이제 두 번째로,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나니 그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아들들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 믿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목적지에 의해
그들이 받는 은혜와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란 "야곱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 번째로 특별한 권리와 칭호를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 아무런 권리가 없었지만 곧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교환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나는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독특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란 특별한 권리와 칭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영원한 영예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아,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특이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특이한 현현을 받았기 때문에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커튼을 위한 울타리, 캐노피를 위한 하늘, 베개를 위한 돌, 침대를 위한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그에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다리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현현했으며, 천사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을 때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어떤 현현이 있었습니까? 이 구절은 야곱처럼 특이한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개인적인 현현을 경험하셨나요? "아, 그건 열정이야, 광신이야."라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특이한 현현을 경험했으니 그것도 축복받은 열정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여호와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이 특별한 현현에 대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광채로 그들의 영혼을 비추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현현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이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아, 불쌍한 야곱! 야곱의 축복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면 야곱의 제비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고, 그 건방진 늑은 라반은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아내를 속이고, 품삯을 속이고, 양떼를 속이고, 이야기 내내 그를 속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쫓아와 추월한 라반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서가 사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에서의 뿌리부터 가지까지 잘랐습니다. 그 후 기도의 계절이 있었고 그 후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허벅지가 관절이 빠진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라파엘이 죽었습니다. 그 후 딸 디나가 타락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기근이 닥칩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모든 아들이 그에게 전염병이 됩니다.

마침내 베냐민을 빼앗긴 노인은 거의 상심에 빠진 채 "요셉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닌데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요?"라고 외칩니다. 형을 속였다는 단 한 가지 죄로 인해 야곱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 내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늑은 야곱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와 매우 유사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변하지 않으니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시련의 영혼들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바심을 내며 "나는 고난을 본 사람이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 "슬픔의 사람"이 당신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옷의 치마만 봅니다. 당신은 그분과 같은 시련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난의 잔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한두 방울만 마셨지만 예수님은 찌꺼기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않으니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즉 특이한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야곱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야곱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성품에는 우리가 칭찬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땅에서 약속을 얻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약속을 얻게 될 위대한 합당한 자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일시적인 양식을 얻는 것, 영적인 만나로 사는 것, 모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 당신의 삶의 규칙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 즉 씨름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집에 오기 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아, 이 불쌍한 이교도야,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수년 동안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도 충분히 오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웃 입을 시간은 있었나요? 하늘 아래에는 모든 목적에 맞는 때가 있으며 기도할 목적이 있었다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듯이 기도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의 뭍은 불로 타는 호수에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많은 것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인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III. 셋째, 다른 요점, 즉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한 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들 야곱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비되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소비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삼켜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아침 여기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지옥에서 불에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 나는 불에 타는 막대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에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정죄를 받는 것, 즉 "이미 정죄된 상태"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술주정뱅이들과 어울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을까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당신을 떠났다면, 그분이 변화하는 하나님이셨다면, 당신은 가장 더러운 사람 중 가장 더러운 사람 중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삶의 계절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죄의 가장자리까지 갔었습니다. 어떤 강한 유혹이 제 두 팔을 붙잡고 씨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끔찍한 사탄의 힘에 이끌려 끔찍한 절벽의 가장자리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아래, 아래,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 뭍을

보았습니다. 나는 파멸 직전에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내가 저지르려던 죄, 곧 내가 떨어질 끔찍한 구덩이를 생각하면서 나는 끔찍한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강한 팔이 저를 구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여 울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용사들처럼 용광로 가까이 걸어가서 그 열기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 내가 저지른 죄와 사악한 상상력을 넘어서 범죄를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할까요? 예,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오, 그분이 변하셨다면 우리는 수십 가지 방법으로 소비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변하셨다면 당신과 나는 우리 자신에 의해 삼켜졌어야 합니다. 결국 자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악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자살을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마시려고 할 때 잔을 우리 손에서 치워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독 잔을 섞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삼켜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만 큼 절반 만 문제가 있었다면 오래 전에 모든 자녀를 죽이지 않았을 아버지는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가족, 즉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건망증이 있고, 반항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목이 뻣뻣한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 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전에 우리 중 일부에게 지팡이뿐만 아니라 칼을 가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 안에 사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적을 수 없습니다. 존 뉴턴은 선택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아, 주님, 주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제 안에서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한 착한 여인의 기발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하느님 백성에게도 해당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난 후에는 사랑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 후에 그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지만, 그분은 행위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행위 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가 그분의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행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그들의 의로움이 그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금빛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귀와 원수에게, 즉 세상에 의해, 죄에 의해, 시련에 의해, 그리고 백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에게 실패했고 저는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대충 훑어봤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고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소화시키고 먹으십시오. 성령께서 기록된 영광스러운 것들을 달콤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들과 잘 정제된 찌꺼기 위의 포도주의 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제거되든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불만을 품고, 사역자들이 쫓겨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이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의 이름을 사악한 것으로 내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의 지위가 바뀌고 재산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당신이 약하고 병들게하십시오. 모든 것이 도망가게 하소서-변화가 손가락을 댈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가 결코 쓸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거의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결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